

KBS - 선플본부 건전한 언어 문화 앞장



권순우 KBS 편성본부장(왼쪽)과 민병철 선플본부 회장이 협약식을 하고 있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와 KBS는 8월 29일 오후 3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을 갖고 거친말과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하는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글과 말로 건전한 사이버 언어 문화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선플 운동 확산과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특히 청소년 인성 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언어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 사업에 요구되는 지원과 편의를 상호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과 권순우 KBS 편성본부장,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애리 KBS 아나운서 실장과 아나운서 20명, 청소년 SNS 기자단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KBS 아나운서들과 청소년 SNS 기자단은 선서를 통해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선플운동에 적극 참여를 다짐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선플언어 모니터단은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입니다. 방송인과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언어 습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KBS 선플운동 협약식과 선플언어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

운 글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플운동 확산과 청소년 인성 교육,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KBS 편성본부장은 인사 말을 통해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플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분들께 격려가 되고 후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플운동본부, 협약식 및 선플언어 모니터단 오리엔테이션 KBS아나운서 20명, 청소년 SNS기자단 200명 참석 선서

일을 만들어 낼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과 공명방송 KBS 아나운서실의 마음이 합쳐서 청소년의 바른 언어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주 의원은 "밝은 생각과 마음은 담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플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틀린 것을 비판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좋은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며 "악플 대신 좋은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선플운동이 확산되면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리라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할 때 엄하게 질책한다는 것이 말이 거칠어 질수 있는데 예의는 갖추면서 내용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정치인도 그렇지만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국민들 간의 갈등으로 몇 백 조의 피해를 입는다"며 "선플언어 모니터단 참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바른언어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사회 내의 갈등을 줄이면서 좀 더 밝은 사회로 가는데 애국적인 일이고 밝은 미래를 만들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에 서명한 KBS 아나운서 178명의 이름이 담긴 동판을 전달하며 유애리 아나운서실장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말 수호천사의

역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국가와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진행된 청소년SNS기자단 선플언어모니터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미래 희망 직종과 관심에 따라 국회법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선택하여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2007년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조종태 기자



선플운동본부와 KBS는 8월 29일,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선플운동본부는 8월 25일, 중국 북경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중국 네티즌들과 실시간 사이버 토론회를 열었다.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로 인터넷 상처 더이상 NO!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8월 25일 15시, 중국 북경 시나웨이보 본사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중국 네티즌들과 실시간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0일, 시나웨이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1차 실시간 선플토론회 이후 선플운동을 지지하는 중국 네티즌 26만명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교수는 웨이보에서 그를 따르는 26만 명의 중국인 팔로워를 대상으로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전파하고, 중국, 미국, 싱가포르, 한국 학생들과 함께 '메르스를 이겨낸 한국으로 오세요'라는 메르스 퍼치 한국 방문 영상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8월 8일, 중국 봉황TV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선플운동 다큐멘터리'를 70분에 걸쳐 방송하고, 그 방송을 본 많은 중국인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병철 교수, 중국 최대SNS 웨이보 통해 중국 네티즌과 실시간 사이버 선플 토론회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민병철 교수의 계정을 팔로우했다.

민병철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중국에서도 악플 대신 응원과 배려를 통해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선플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어 한중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웨이보의 양광 편집장은 "중국에서 웨이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선플운동 관련 글들을 지난 5월 1차 토론회부터 이날 2차 토론회까지 '5천 7백만 명'이 읽었다"고 밝히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조종태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헨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통격눈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상대 '경남 우리말 가꿈이', 야구장에서 홍보 활동 눈길

7월 24일 마산종합야구장에서 언어문화개선 운동 펼쳐

국립 경상대학교(GNU·총장 권순기)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지난 7월 24일 '경남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회원들이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우리말 가꿈이' 회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우리말을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는 행사인 '경남 한글 왕을 찾아라!'를 진행하고,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에

게 붙임쪽지와 부채 등 홍보 물품을 나눠 주며 언어문화개선 운동도 펼쳤다.

'우리말 가꿈이'는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동아리로서 경상남도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년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상대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남 우리말 가꿈이는 지난 4월 2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용성 기자

울산우리말가꿈이, 언어문화개선 성남동 젊음의 거리서 '체험행사'

울산 우리말 가꿈이들이 범국민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를 원도심에서 펼쳤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대표 최효정)는 7월 24일 오후 2시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우리말 가꿈이, 지도위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말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시민 대상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민에게 올바른 우리말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으로 꾸며졌다.

초성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고, 제시된 글에서 틀린 맞춤법을 찾아보면서 우리말 지식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기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무더위를 식혀줄 '순우리말 부채 만들기' 행사에도 함께 하였다.

최 대표는 "많은 울산 시민이 젊음의 거리에서 젊음과 더불어 우리말의 향기를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우리말 가꿈이 어울림 한마당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는 지난 금요일 오후 8월 14일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코미디 그룹 웅알스 '안녕! 우리말' 공연 국립세종도서관서 저글링, 성대모사 등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성경희)이 주관하는 바른 언어문화확산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이 7월 문화가 있는 날인 29일 저녁 6시 국립세종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을 맡은 국가대표 난버벌 코미디 그룹 '웅알스'는 '세계 공용어는 영어가 아닌 웃음이다!'를 내세우며 '일상에서 되새겨보는 한글의 가치'를 주제로

바르고 고운 말 쓰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공연내용은 영국 에딘버러 공연 축제 등에서 최고 평점을 받는 팀으로 마임, 저글링, 성대모사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고로 '안녕! 우리말'은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을 새롭게 만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이며 '난버벌(Nonverbal)'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말에서 되새겨보는 한글의 가치를 의미한다.

"청소년,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2015 세계 청소년의 날

선품운동본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 인문학 토크쇼' 개최

선품운동본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8월 12일(수) 미래에셋 센터빌딩 20층 강당에서 세계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여 '청소년 인문학 토크쇼'를 개최했다.

토크쇼 진행에 앞서 청소년 대표는 'UN 청소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미니토론회 형식의 토크쇼를 통해 '꿈에 대하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등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에셋 사회공헌실 조현욱 상무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신 곳이 주화를 찍어내던 곳으로 돈방석에 앉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자랑스럽다. 훨씬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삶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남아있는 방학기간, 남아있는 청소년 기간 유익하게 열심히 생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최은아 원장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면 '화장품 세일', '피세발 리면 무료', '여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매일 3교시만



세계청소년의 날을 맞아 8월 12일(수) 미래에셋 센터빌딩에서 열린 '청소년 인문학 토크쇼'에서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수업하자' 등 재미있는 의견들도 나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늘려야 좋겠다"며,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나 생활비용 등 청소년복지가 안타까운 것 같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복지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토크쇼를 진행한 한국청소년센터 원은정 대표는 "올해 UN에서 발표한 키워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인데, 청소년

의 사회참여란, 학교에 가고, 봉사활동 하고, 모임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 것,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인터넷에 의견을 기록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청소년의 사회참여"라며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하려면 나의 생각과 주관이 분명할 때 사회참여가 근사해진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을까, 내기하는 사회활동과 생활에 나의 주관과 관점이 뚜렷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세대를 보내고 있는가 공감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들었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사랑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은 떠 있는 연처럼 어디든 가고 싶었지만 어른들은 붙들고 싶은 끈을 갖고 싶은 것이 한 세상을 먼저 산 생각이다. 크게 결별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른들이고 부모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해줄 줄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에게 '잘 버티 / 편하게 살아 힘빼지 말고 / 태어나줘서 고마워 / 행복하게 잘 살아라 / 힘들면 밥먹어 / 아직 늦지 않았어 / 고민을 풀어라 / 포기하지 마라 / 너는 소중한 아이야 / 애들이 성적이 전부야 노력해 / 후회없는 삶을 살자' 등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응원의 말, 칭찬의 말을 건네며 토크쇼를 마무리하였다.

조윤희 기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밴드 연주 치어리딩 등 공연과 전시, 안전엽서 쓰기 체험 등



7월18일(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꿈! 열정! 미래! 네 끼를 펼쳐라!'를 주제로 열렸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최하고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 주관한 '2015년 종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을 위하여 7월18일(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꿈! 열정! 미래! 네 끼를 펼쳐라!'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공연·전시·체험의 주제별로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기며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다.

무대공연에서는 배화여중 치어리딩팀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의 댄스, 밴드연주, 마술, 한국무용, 치어리딩, 통기타 연주 등을 즐길 수 있었고, 일반인들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비롯하여 커피컵 화분만들기 체험과 청소년 심리상담, 과학동아리의 방화제 만들기, 이면지 공책 만들기, 안전엽서 쓰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11월 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하여 감고당길(중문여고 앞) 등에서 개최되며,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나 청소년들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387-07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희 기자

김해신안초, 건전사이버문화조성 앞장 '학교폭력예방의 골든벨을 울려라' 개최

김해신안초등학교(교장 이은옥)가 2015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경남대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13일(월) 14시, 학교 강당에서 '건전사이버문화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의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사이버 세상에서의 예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골든벨 문제는 김해독서터레이 행사 책임 '어느날 구두에서 생긴 일'에서 학교폭력과 관계된 문제들과, 인터넷상에서의 예절, 네티켓, 올바른 스마트폰기 사용법, 선물(꼬리말)을 달 수 있는 게시물에 꼬리말을 좋게 올리는 것)의 기원과 선물운동 방법 등에서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다소 생소했던 선물운동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조세현 학생은 "비록 골든벨을 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사이버 상에서 해온 활동을 반성할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구본우 선플누리단 회장은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사이버폭력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현성 교사(2014년 선플지도자 대상 수상)는 "선플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건전사이버문화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플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의 자료를 김해신안초 선플누리단 홈페이지에 올려 전



김해신안초등학교에서 7월 13일(월), '건전사이버문화조성 및 학교폭력예방의 골든벨을 울려라'가 펼쳐졌다. (박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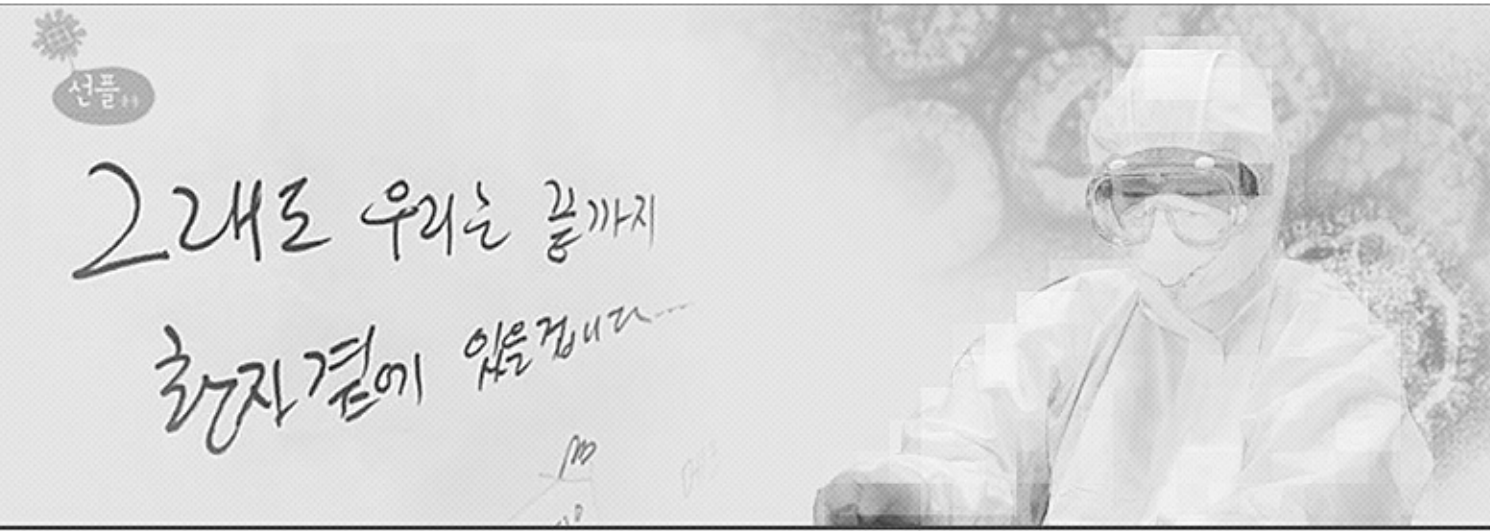
국의 선생님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옥 교장은 "어깨동무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선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특색적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학

교폭력 예방 플래시몹 경연대회, 학교폭력 예방 골든벨 등)들이 여러 학교에서도 함께 이루어져 학교폭력 예방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윤희 기자

선플운동본부, 메르스 의료전사들 선플로 응원



6월 18일까지 3일 동안 네티즌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플운동본부에 남긴 댓글이 1,500개를 훌쩍 넘겼다.

선플운동을 이끄는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교수는 이날 "메르스 치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자가격리자들에게 비방과 조롱의 악플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선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플운동 공동대표 배우 정준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앞장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플 홍보대사 가수 알리는 "먼저 확진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에 협조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선플운동본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동참해주시는 자가격리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과 격려의 선플달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퇴치 응원 사이트 사진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는 중증호흡기중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응원하는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7월1일 제1공수여단에서 와이티엔 이광연 아나운서가 '우리말 안녕!' 강연하는 모습

국어문화운동협, '안녕! 우리말' 강연

YTN 이광연 아나운서, 제1공수 특전여단 강연

"말과 글은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이다. 말과 글에 따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어떤 나라 글보다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 도구여서 좋은 것만 담아야 기본 일이 생긴다"

국어문화운동협연합회의는 지난해 공공기관(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담당)과 거리간관(한글문화연대 담당)의 영어나눔과 언어문화실태를 조사하고, 대학 영어 몰입강의(국어문화운동본부 담당) 문제를 조사했다.

또 2014년 10월 7일에 "외국어 남용어로 몸살을 앓는 한국어 살리기" 중간발표회를 한 일이 있다. 지난해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문체부 지원을 받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위원장 이대로)가 주관해서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제1공수 특전여단 장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TN 이광연 아나운서가 연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은 방송언어와 생활언어의 잘못된 사용 사례를 들어, 말과 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고 장병들끼리 바르고 고운 말을 함으로써 병영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안녕! 우리말' 순회강연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우리 말글의 소중함과 쉽고 바른 말글살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공감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획되었다. 연말까지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강연은 국어 전문가들이 '한글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글, 정보 통신과 만나다', '우리말글 뜻을 한마당'을 큰 주제로 하여 우리 말글의 소중함과 쉽고 바른 말글살이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돌며 강연을 하고, 아나운서와 연예인이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군부대를 돌며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문체부에서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순회강연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활 속에서 바른 언어 사용을 몰스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지난해에 이어 언어 개선 선도 부대를 선정하고 이 부대들을 중심으로 문체부가 시행하는 순회강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병영 언어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강연 신청은 문체부 국어정책과(044-203-2535)나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로 하면 된다.

이경 기자

국군장병을 위한 사이버 선플위문편지 국방부 전달

국군장병 선플 위문편지 사이트 헌정식 개최



선플운동본부는 26일 국방부에서 '국군장병 선플 위문편지 쓰기 홈페이지 헌정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는 6월 28일(금) 10:00 '호국보훈의 달'이자 '정보문화의 달'인 6월을 맞아, 국방부(장관 한민구)를 방문하여 '국군장병 선플위문편지 사이트 헌정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시작된 '사이버 선플 위문편지쓰기 사이트'에 전국 청소년들과 네티즌들이 올린 선플 위문편지는 1만여 통을 넘어섰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네티즌들이 국군장병들에게 쓴 '선플위문편지 쓰기 사이트'를 국군에 헌정하며 "이 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년들과 네티즌들이 국군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선플위문편지 쓰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군장병 선플위문편지 사이트를 전달 받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국군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 특특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으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헌정식에 참석한 세화여자고등학교 최민재 학생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디기 어려운 날에도 힘든 헌

선을 마다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분들이 멋지고 존경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

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민병철 교수, 8년간 선플활동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발간

민병철 교수가 2007년 초 악플에 상처 받아 고통받던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충격을 받고 시작한 선플운동을 최근 8년간의 활동기록과 청소년들의 변화를 담은 책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를 발간했다. 책은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알려준다.

"결국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가 성인보다 영어를 더 빨리 익힐 수 있듯이 인성교육도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정부가 영어·수학·국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면 청소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2007년 시작한 선플운동은 최근 주변국에서도 환영받아 민간공공의교과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중국(웨이보)와 선플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네티즌들과 선플운동에 대한 사이버 토론을 벌였고, 이틀남에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공산당청년단 대표단 등에게 선플운동 강연을 했다. 그 결과 '웨이보'를 통해 선플은

동에 동참하는 중국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무려 27만명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중국 <인민일보>와 함께 양강강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선플달기 홈페이지를 열었고, 현재까지 3만 4천여 명의 한국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선플운동본부, '2015 환대실천캠페인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개최



선플 환대실천 청소년 봉사단 3월 28일 왕십리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대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는 3월 28일(토) 14시, 성동청소년수련관 1층 무지개극장에서 3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환대실천캠페인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시상식에 앞서 선플 환대실천 청소년 봉사단은 서울시 왕십리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대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방배어린이합창단이 합창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팝플레이와 아웃스탠딩의 댄스공연, 윌리엄의 음악공연이 축하무대를 마련했다.

환대실천 우수사례 발표시간에는 운상용 평택 환광고등학교 교사와 박현성 김혜 신안초등학교 교사가 발표하였고, 관광협회중앙회 공후식 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환대실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UCC 부문 정광호 함형덕, 표어부문 발곡고 이현지, 블로그 만화부문 김혜신안초 김정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환대실천 캠페인은 선플운동본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고 전국선물지도교사협의회 주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환대를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환대실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조용태 기자

한글날 특집 '안녕! 우리말 KBS 도전 골든벨'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국어문화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배영환)이 주관한 '2015년 한글날 맞이 KBS·국어문화원과 함께 하는 안녕! 우리말 KBS 도전 골든벨 제주 예선대회'가 지난 8월 30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4개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제주 예선 대회는 569명 한글날을 맞아 우리 한글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전국 동시에 이루어진 제주도내 14개 고등학교 학생 161명이 응시해 서귀포고교 송이레 학생(1년)이 최고점을 받아 으뜸상을 차지했다. 비금상은 제주고교 김다현(1년)·서

귀포고교 최가영(1년) 학생이 받았고, 오후 이준현(2년)·신성여고 김주현(3년) 학생은 보람상을 차지해 제주대 국어문화원상을 받았다.

송이레 학생 등 5명의 입상자들은 오는 9월 12·13일 수원 KBS 드라마 세트장에서 한국방송(KBS) 주관으로 열리는 '한글날 특집-2015년 한글날 맞이 KBS·국어문화원과 함께 하는 안녕! 우리말 KBS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여 예선을 거쳐 올린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본선 대회를 치른다. '안녕! 우리말 KBS 도전 골든벨' 본 방송은 10월 11일 저녁 7시에 방영된다.

조용태 기자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글쓰기 환경의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 급격한 변화 때문

2014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맞춤법 부호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정안은 1988년 공표된 '한글맞춤법' 규정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와 사용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 2014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안의 내용은 표와 같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문장부호들은 최대한 유지하되 26년 동안 변화한 국민들의 정서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안 중에서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마침표이다. 원래는 '온 점'만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말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점'과 '마침표' 모두 맞는 말이 되었다. 마침표와 관련된 개정안은 연월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모두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5년 5월 15일'은 '2015.05.15'와 같이 써야 한다. 만약 '2015.05.15'와 같이 끝에 점을 찍지 않는다면 '2015년 5월 15'라고 한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가운뎃점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하는 빈도가 감소하였다. 이를 인식한 국립국어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운뎃점을 마침표나 온점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낱말 표시할 때는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마침표로 대체할 수 있다. 기령,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쓸 때 개정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쓸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가운뎃점이 원표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 또는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이다. 어떤 시험에서 등급을 언급할 때 보통 '상·중·하위권'과 같이 사용하지만 '상, 중, 하위권'과 같이 가운뎃점을 원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줄임표도 기존의 방안보다 훨씬 편리하게 개정되었다. 기존의 줄임표는 '.....'와 같이 점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줄임표는 가운데 여섯 점(.....), 가운데 세 점(...), 아래 여섯 점(.....), 아래 세 점(...) 모두 바른 표현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글 맞춤법 부호 개정의 이유를 글쓰기 환경의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바로잡았다. 더 자세한 한글 맞춤법 부호 개정안을 알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2기 박지현 기자

민병철 교수, 관광객들에게 '한국방문 캠페인'

선플운동본부, 강남역과 대학로 일대 "메르스를 이겨낸 한국으로 오세요"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7월 22일부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민교수를 따르는 26만 명의 중국인 팔로워를 대상으로 중국, 미국, 싱가포르, 한국 학생들과 함께 "메르스를 이겨낸 한국으로 오세요"라는 '메르스 퇴치 한국 방문 영상캠페인'을 시작했다.

민병철 교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대학생들과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학생들과 함께 지난 7월 15일 강남역 일원과 7월 1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메르스 퇴치 한국 방문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다.

'메르스 퇴치 한국방문 영상캠페인'에 참여한 각국 대학생들은 각자 중국어와 영어로 메르스를 이겨낸 한국에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리는 동영상 제작하여, 유튜브(<https://youtu.be/QjoJ50mgUkc>)와 웨이보(<http://bit.ly/1IpXYa>)에 올려 홍보하고 있다.

캠페인을 주최한 민교수는 "메르스가 종식된 현재, 한국을 떠난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용태 기자



7월 1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메르스 퇴치 한국 방문 캠페인' 진행을 위해 선플 사이버공공외교단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고의 말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2015 상반기 최악의 말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국어문화운동단체 2015년 상반기 최고의 말 5개, 최악의 말 5개 선정

국어문화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2015 국민공감 말 선정 위원회'(위원장 이일하)는 지난 6월 30일, 상반기 최고의 말과 최악의 말을 각각 5개씩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제 합니다."(텔레비전 프로그램 패널) - "꿈이 오지 않으면, 내가 가면 된다."(토르콘서트 참가자)

좋은 말이 많이 알려져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욱)가 주최하고 국어문화운동본부(대표 남영신)와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연합(공동대표 민병철, 소장촌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 중 국민통합에 적합한 최고의 말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말을 조사·선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말의 품격과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15 국민공감 말 선정위원회는 심사·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 11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선정 작업은 일반인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였다.

상반기 최고의 말로 선정된 한 간호사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진입한다."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이들이 감동시켰다.

반면에 2015년 상반기 최악의 말로 선정된 5개는 다음과 같다.

- ◆ 2015년 상반기 최악의 말 선정 5개
- "300만 명 전염돼야 비상사태"(공무원)
-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교육자)
-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했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대학 이사장)
-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버려야 한다."(판사)
- "오늘은 장애인들 생일이니 침착하게 대응하라."(경찰 공무원)

이들 최악의 말 선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300만 명 전염돼야 비상사태"라는 말은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는 중에 공무원이 아직 비상 사태라고 할 수 없다는 말로 한 것인데 이는 메르스 사태로 공포와 불안에 느끼고 있을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다.

어느 한 교감의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라는 말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했던 진인한 말이었다. 해당 교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비교육적인 말이자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최악의 말에는 매우 폭력적인 언행들이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인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했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는 대학 이사장이 반대 교수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선정 이유로는 교육자인 대학 이사장이 교수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을만큼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말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위와 비슷한 이유로 선정된 현직 판사가 SNS에서 한 말,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 버려야 한다." 역시 판사의 품위에 맞지 않으며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장애인들 생일이니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경찰 간부가 장애인들의 낱말 장애인 생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항의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조롱조의 어조에, 많은 국민들도 이 말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어문화운동본부 남영신 대표는 "책임과 통감해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등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을 차별과 배제의 말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태 기자

광복절 70주년 기념 한글사랑 나라사랑 캠페인 활짝

안병용 의정부시장 캠페인 동참, 신숙주 선생님 일화 소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의 청소년수련관 소속 언어지킴이 선플누리단 위원 30여명은 8월 13일 오전 8시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대한민국 광복절 70주년 기념 한글사랑 나라사랑 우리 모두 함께해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출근길에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 기념 "한글사랑 나라사랑 우리 모두 함께해요" 캠페인을 하는 선플누리단 참석위원들을 일일이 격려하시고, 의정부시가 낳은 집현전의 훌륭한 학자이신 신숙주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의정부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에 선플누리단 이현지 위원장(발곡고등학교 3학년)은 역시 학자 출신이신 안병용 의정부시장님의 격려 말씀대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사랑 나라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홍보할 것을 다짐하였다.

의정부시청청소년수련관 언어지킴이 선플누리단은 지난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의정부시 어울림마당 행사시 부스운영 및 거리캠페인 실시로 한글사랑 나라사랑 홍보를 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선플누리단 위원 30여명과 함께 한글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언어지킴이 '산울림' 원주시 전통시장 방문



2015년 8월 6일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언어지킴이 동아리 '산울림' 부원들이 원주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을 체험하며 우리말 간판활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말 간판을 찾아보고,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며 우리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모둠 별로 간판을 찾고,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로 구분하며 우수팀을 선정하였다.

새로 생긴 '신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39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등장

3월 25일,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간지 등 139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에 등장한 신어 334개를 조사하여 국립국어원이 '2014 신어'를 발표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신어'는 새로 생긴 말, 혹은 새로 귀화한 외래어로 정의되며 신조어와 같은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같은 신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정보 공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신어'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 신어'는 전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구로 동사, 부사, 형용사인 신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외래어뿐만 아니라 신어가 증가했는데, 이 중 90%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4 신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사회 분야의 신어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2014 신어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분야의 신어는 다음과 같다.

감성·캠핑족: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파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교육·절벽: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정 경제의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팔족: 밥에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파우로 나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셀피족: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일자리·절벽: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거·절벽: 급격하게 오르는 주거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퇴근·쇼핑족: 출퇴근 쇼핑족 출퇴근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 따위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분야의 신어를 보면, '교육절벽, 주거절벽, 일자리 절벽'과 같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어휘나 '감성 캠핑족, 셀피족, 나팔족'과 같은 특정 행위를 하는 사회무리를 지칭하는 신어들이 등장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를, '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의미 있는 신어 자원을 주기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어 어휘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언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신어 조사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신어들을 보니 익숙한 단어도 많지만 생소한 단어, 단어만 보고도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어도 많다. 이와 같은 신어들은 이후 지속적인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사전의 등재 여부 및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2014 신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신어의 더 많은 예를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이름 기자

광고 속 맞춤법 편찮을까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 사람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이제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폰, 영화관, 길거리 등에서 각종 광고 영상들을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광고의 파급력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5조 2항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광고매체는 올바른 국어사용에 있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광고에서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광고 속 맞춤법 오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광고에 가치를 대표 사례로 들어보려고 한다.

*호음 관계가 부적절한 표현
▲ '피로 회복'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쓰인 자양강장제 광고



광고 문구에 '대한민국 피로회복제'라고 나타나 있는데,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유명한 제품의 광고이다. 1963년에 출시된 후, 50년이 넘는 동안 '피로회복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피로회복'에서 '피로'와 '회복'은 사실상의 의미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사전에 따르면,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피로회복'은 '피로한 상태로 되돌아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피로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자양강장제'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피로 해소', '피로 감소' 또는 '원기 회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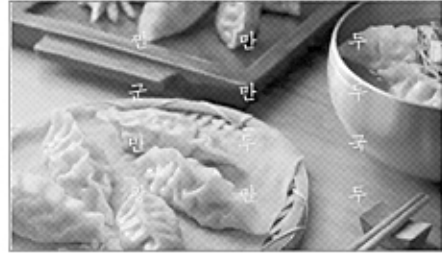
*의존명사 것? 꺼? 깨?
▲ 띄어쓰기와 더불어, 의존명사 '것'의 이형태 '꺼'가 '꺼'로 잘못 사용되었다.



2015년 양띠 해를 맞아 새해 소망 문구와 양 캐릭터를 결합하여 선보인 음료 광고이다. '행복해질꺼(양)'이라는 구어체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친

근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광고주 입장에서 친근감이 중요하겠지만, 법조항에 언급된 것처럼 대중매체가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위 문구는 '행복해질 거(양)'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꺼'가 [꺼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에 표기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으나, '꺼'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쓸 수 없다.

*만두국과 만둑국
▲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만둑국'으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만두국'은 한자어 '만두(饅頭)'와 고유어 '국'이 결합하는 합성어이다. 앞말인 '만두'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국'의 첫소리가 [ㅈ]의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이시옷 규정 사항을 지키기 때문에, '만두'와 '국' 사이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비슷한 예로 '등꽃길'이 있다. 한자어 '등교(登校)'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하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로 발음되므로 이 역시 사이시옷의 조건에 적합하다.

* '르' 받침이 있는 동사와 없는 동사의 활용
▲ '변해 볼란다'가 아닌 '변해 보란다'가 옳은 표현이다.



'보다'의 어간에 '러고 한다'의 줄임말인 '러다'가 붙어 '보러고 한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보다'처럼 받침이 없는 동사인 '가다, 하다'의 어간 뒤에 '러다'가 붙으면 '보러다'처럼 '가러다, 하러다'로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르' 받침이 있는 '살다, 만다, 읊다' 등의 동사 어간 뒤에 '러다'가 결합하면, '르' 받침을 그대로 넣어서 '살러다, 만

러다, 읊러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광고와 우리말
그렇다면 왜 광고에 잘못된 우리말 표현이 나타나는 걸까. 광고언어는 짧은 시간 안에 되도록 강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수많은 광고들 사이에서 보는 사람의 흥미를 제일 먼저 이끌어내고 눈에 들어오기 쉽도록 일상 회화적·구어체의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행복해질꺼야'나 '변해 볼란다'처럼 잘못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쓰게 되는 것이다.

▲ 한글 전용 잡지 『뿌리 깊은 나무』



하지만 광고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70-80년대의 광고는 오히려 우리말 바로쓰기에 충실하려 했다. 70년대에 신문 발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 지면의 수도 늘어났다. 외국 상표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광고들 못지않게 잘못된 영어식 표현이 난무하던 도중, 1976년 창간된 잡지 『뿌리 깊은 나무』는 순우리말 표현만 써서 화제가 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컬러텔레비전이 도입되면서 광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이때도 역시 외국어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광고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1983년에 우리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기업의 광고가 광고대상을 받음으로써 주목을 받고, 이후로도 80년대 초중반의 광고들은 그 맥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주최하여 대외적으로 보는 눈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 방송광고 문구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어 광고를 제작할 때도 검사 프로그램을 요긴하게 쓴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맞춤법 검사기가 크게 발달되지도 않았던 이전 시기의 광고들이 오히려 우리말 바로쓰기에 더 충실하려 했던 것을 보면, 지금의 광고문구들이 맞춤법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다.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2기 이소영 기자

“너무 좋다” 이젠 문법에 맞아요 국립국어원 ‘너무’의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이제 '너무 좋다'는 말을 사용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22일 '2015년 2분기 수정 내용'을 알리면서 기존 '너무'의 의미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지나치게'에서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로 수정했다. 더불어 사용 예제에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반갑다'를 추가했다. 부정적인 표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너무'의 의미를 확장해 긍정적인 표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사 '너무'의 원래 쓰임은 '너무 싫다', '너무 못생겼다'처럼 부정적인 의미 앞에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너무'의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을 수정한 뒤로 '너무 좋다'나 '너무 예쁘다'처럼 긍정적인 표현 앞에 써도 맞는 표현이 됐다. 이제 '너무 기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부사 '너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였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에는 <온라인 가나다>라고 해서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온라인 가나다>에 '너무'를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자료가 전문가 아닌 단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너무 좋다' 같은 '너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문의가 많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원이 많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한다. 일단 다수 언중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 현실의 지의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한 후 그렇게 쓰이는 것이 어문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

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 언중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표준어로 등록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에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너무"에 대한 국어사전은 단어의 실제 쓰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부사 '너무'가 실제에서 긍정, 부정의 맥락을 떠나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뜻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이러한 쓰임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사전의 정보를 수정하게 된 것이니,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너무'가 긍정적인 서술어와 쓰여도 좋다는 국립국어원의 결정이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을 수정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바람은 바람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언중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바른 언어를 쓰고자 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2기 이지영 기자



청소년들을 위한 비문맹쓰기 운동과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청소년 토론대회 모습

‘떡방’, 이제 순우리말과 함께 하자 ‘한밥’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밥이나 음식이라는 뜻

최근 '떡방', 즉 먹는 방식이 화제로 떠올랐다. 누리소통망(SNS)에 들어가면 맛집을 추천하는 게시물도 넘쳐나고, 텔레비전 방송은 드라마, 예능 할 것 없이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이렇듯 먹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유행하는 요즘, 그 흐름에 맞추어 음식과 그 맛에 관련된 순우리말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인 '밥'과 관련된 순우리말이다. '감투밥'은 그릇 위까지 수북하게 담은 밥을 뜻하는 단어로, 흔히 머슴밥 또는 고봉밥이라고 쓰이는 단어와 같은 뜻이다. 문장 속에서는 "나문다문 풍을 놓은 하얀 쌀밥을 밥그릇이 미어

지게 눌러 담은 감투밥이었다."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다음은 '한밥'이라는 단어이다. '한



http://blog.naver.com/kth9598

한밥 먹고 나니 배가 불룩하게 나왔."와 같이 쓸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맛 표현과 관련된 순우리말이다.

'알근하다'는 매워서 입 안이 조금 알알하다는 뜻으로, "찌개가 알근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구들하다'는 변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재빨리 구수하여 먹을 만하다는 뜻으로, "구들한 된장국 냄새가 났다."와 같은 예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따라지다'는 국물이 바둑하고 맛이 있다. '훈감하다'는 입에 당길 정도로 맛이 진하고 냄새가 좋다는 뜻이다.

살펴본 것과 같이 음식이나 맛 표현과 관련된 순우리말은 다양하다. 먹는 행위와 순우리말을 해소하는 방법, 삶의 원동력,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상에서 순우리말을 활용하여 맛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2기 김태희 기자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사/업/분/야

- UPS 설비구축
-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 STS 설비구축
- Generator 설비구축
- Battery 설비구축
- 가스소방 설비구축
- 수변전 설비구축
- 전기공사
- IDC 컨설팅 서비스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공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요건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합,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 으로서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 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9 본사(공정) :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수레살림 14
TEL. 02 2281 0035 / www.hajpna.co.kr

칼럼 | 김종복 / 선플운동본부 서울포럼 회장

선플운동과 인성교육 선플 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



1950년대 6.25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국민소득이 70여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결실로, 먹는 문제는 다소 해결 되었으나 삶의 질은 너무나 낮은 단계였고 생활의 여유로움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사회는 시민 의식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수준이 낮아 서로 험뜯고 비방하면서 사회 질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에 들어와 국민소득이 25,000불을 넘어,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세계10위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의 관행이나 관습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아 사회 질서가 어지럽고 많은 불신이 조성되

어 왔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악플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심지어는 언어 폭력인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선플운동은 언어정화 운동으로 선한말과 선한행동으로 아름다운 행동과 선한사회를 이룩해나가는 취지로 태동 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우리 한국에서 선플 운동은 정신 정화 운동이며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제2의 새마을 운동인 것이다. 2007년 5월 23일 민병철 박사에 의해 발족된 선플 운동은 그동안 학교 일반기업체 정부 기관 군경 및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회의원 192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플운동을 참여하여 선플을 단 9수가 전국에 630만을 넘어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학생 학부모, 기업체, 단체, 학교, 지자체 군 및 정부기관이 속속 참여하고 있고 이 운동은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플 운동으로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 들었으며 학생 간의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다. 세계가 하나이고 모든 면에서 Global 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의식문화가 발달하여 선진의식을 갖는다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미래의 선진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플운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화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선플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플운동을 발족하시고 어려움속에서도 이 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민병철 이사장님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릉을 찾아 한글자부심 느끼세요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휴가기간 특별 개방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5주간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 여주 영릉(英陵, 세종대왕릉)을 특별개방하였다.

이번 특별개방은 문화유산3.0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평소와 같이 진행했으며 관람객이 다소 적은 여주 영릉(英陵, 효종대왕릉)은 특별개방에서 제외되었다.

영릉(英陵)이 위치한 경기도 여주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여름 휴가철에 유동인구가 많으며, 지난해 여름 휴가철 특별개방 기간에도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바 있다.

영릉(英陵)은 조선 4대 임금이자 훈민정음 창제, 과학과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잠든 곳으로, 매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애민정신을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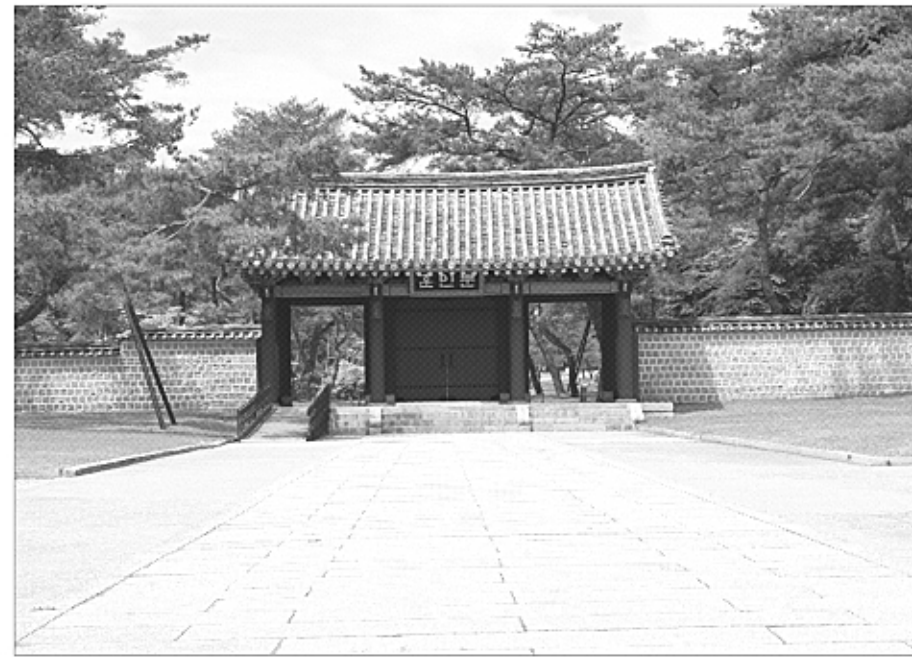
한편, 7월 한 달 동안 세종대왕릉을 비롯한 조선왕릉과 4대 궁, 종묘를 무료로 개방하여 휴가기간 동안 시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람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문화유산이 국민과 함께 누리고 즐기는 문화유산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왕은 조선 제4대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 54세로 승하하실 때까지 32년간 재위하였다.

세종이 만행한 양녕대군을 두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 왕자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현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왕은 우리나라 역대 군왕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이경 기자



기고 | 이다정 / 대학생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어디까지...?

악플이란 '악(惡)'과 영어의 'reply'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담아서 올리는 댓글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악성댓글이라고도 불린다. 악성 댓글은 일상생활에서도 공존하고 있지만, 그 중 악성댓글을 쓰는 사람 즉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은 주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악성댓글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을 받고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치료를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연예인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악성댓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악플러들의 댓글이 온

라인을 뒤덮고 있다. 인터넷과 sns가 활기를 띠수록 피해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강경한 대응을 선택하지 못하고 혼자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럴수록 반성하는 것이 아닌 더욱 대담해지는 악플러들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인격모독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플러의 정보를 퍼뜨려 스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예계에서는 과거 '악플도 관심이다'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법은 악플이 달린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악성댓글

로 인한 제2의 피해자가 나오기 이전에 명확하고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거나 올바른 온라인 문화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댓글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크게 없다. 악성댓글을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그게 곧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령 내가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악플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예인도 사람이다. 악플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존하고 있고, 악플러가 악플러를 낳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루 빨리 올바른 사이버 문화가 발돋움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아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음악사의 위대한 작곡가 '세종' 아세요

국악콘서트 '꿈꾸는 세종' 통해 음악적 재능 공감 음악의 원리를 한글창제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져



음악사의 위대한 작곡가 세종대왕을 아세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이 8월 13일, 여름방학을 책임지는 국악콘서트 '꿈꾸는 세종'을 진행하였다.

2014년 여름, '미스터리 청소년음악극' '꿈꾸는 세종'은 영화와 연주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며 국악계 새로운 장르의 시작을 알렸다. 제2회 창작국악극 대상에서 연주상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은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꿈꾸는 세종'은 올해 더욱 높은 완성도로 관객을 만났다.

'한글 창제자'로만 알려진 세종대왕은

한글만이 아닌, 그러나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사에서는 '위대한 작곡가'다. 악기 율관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악보의 일종인 정간보를 창제하고 '여민락'을 작곡하는 등 조선 음악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왕이 직접 거행하면서 음악부흥을 일으킨 세종대왕은 백성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런 의지에서 '꿈꾸는 세종'은 우리 역사 속 음악 이야기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꿈꾸는 세종'은 음악과 영상의 입체적인 전개로 청소년 관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더욱 높였고 특히 연극과 뮤지컬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연출가인 오경택 연출이 직접 대본과 영상연출을 맡아 한층 탄탄하고 흥미로운 공연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원들이 무대 위의 '연주자'는 물론 영화 속의 '배우'로도 출연했다. 음악, 영상 연출을 통해 책에서도 보지 못한 세종대왕의 음악적 재능을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어 한글의 문화적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름방학 특별콘서트로 선보인 이번 공연은 주위 관람객들의 만류에도 우리글과

우리 음악을 만드는 데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세종대왕처럼 전통음악의 발전적 계승은 물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 국악인들의 용기 있는 도전도 응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광화문, 한글 창제에 영감을 주었던 세종대왕의 음악은 서울 문화예술의 중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이름도 이렇듯 우리 문화를 융성하게 꽃피운 세종을 기리는 뜻이다.

세종문화회관은 한글에 담긴 음악, 음악이 담긴 복합문화예술회관이다.

일화를 예로 들면 한글 창제로 고단한 나날을 보낸 세종이 그의 앞에서 악공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음률을 속으로 따라부르던 세종의 머릿속에 한글기 염감의 빛이 스며들며 '잠깐 멈추려라!'를 외친다.

'소리'의 높낮이 순서와 사람의 목구멍에서 입술로 멀어지는 음의 순서가 비슷하구나. 맞다. 이겨내!' 하면서 세종은 음악의 원리를 한글창제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경 기자

기고 | 나지혜 / 대학생

기획사 연습생이 자살한 사건처럼 연예계 연습생들의 이면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래희망이 정규직이라는 뜻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연예인은 청소년들 희망직업에서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돈을 많이 벌고 전문가들의 손길로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삶을 사는 연예인들은 극소수이다. 대부분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을 강요 당한다.

SM, JYP, YG, 큐브 등과 같은 내로라하는 국내의 굵직한 기획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속사에 속한 연습생들은 데뷔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힘들다. 유명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들은 이미 데뷔전부터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인기 있는 아이돌의 후배가수라는 엄청난 후광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의 자리에 서기 쉽다. 하지만 유명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다. 공개 오디션의 경우 경쟁률이 수

천대 일에 육박하며 실사 오디션을 통과해 연습생 타이틀을 달게 되더라도 매달 있는 소속사의 월말평가에서 하위권을 뽐낸면 결국 제명된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어린 연습생들이 많다.

올해 초, 한 기획사에서 연습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획사는 바로 국민 걸그룹 '카라'를 만든 기획사였다. 카라의 원래 멤버는 5명이었으나 2명의 멤버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획사를 떠나면서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 소속사는 '베이비 카라'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방송했다. 7명의 소속사 연습생이 매회 미션과 시청자 투표를 거쳐 최종 1인

이 카라의 멤버가 되는 형식이다. 위 과정을 통해 선정된 1명만 데뷔하고 나머지 6명은 다시 고된 연습생의 과정을 거친다. 방송이 끝나고 난 후, 떨어진 6명 중 맏언니(23)였던 연습생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회사를 나왔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의 자살 소식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려졌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23살이었다.

사회에서는 한창 예쁜 나이이며 대역으로서 꽃을 피울 나이이지만 연습생의 잦은 간절하다는 뜻이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그들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성공한 선배가수만 보고 무작정 달리다 가리킬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연습생 본인도 후시 모를 만약의 상황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극단적이지만 위의 연습생과 같이 데뷔의 꿈을 이루지 못한 연습생들의 향후 앞날은 막연하며 목적지 없이 길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일 것이다.

불안한 미래에 울인 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그들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성공한 선배가수만 보고 무작정 달리다 가리킬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연습생 본인도 후시 모를 만약의 상황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대왕 힐링로드' 세종·충북 세종대왕 숨결 그대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지역발전 우수사례 포창



세종대왕의 숨결을 그대로 느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한 '세종대왕 힐링로드'가 호평을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청주시는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업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힌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이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월 27일 밝혔다.

2013년 청주시가 주관하고 증평군이 참여,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시행한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은 세종대왕이 123일간 요양하면서 문화·행정·과학 정책을 펼친 역사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글, 그림, 사진이 어우러지는 스토리를 만들고 마을문화 거꾸로, 문화상품·특산품 개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 기자

칼럼 | 이현원 / 칼럼니스트



오래간만에 단행본 소설을 읽었다. 헬만 헤세의 장편소설 '데미안'이다. 이 소설은, 내가 젊은 시절 깊은 뜻을 모르면서 읽은 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39세인 1916년, 제1차세계대전중에 썼고, 전쟁이 끝난 1919년에 출판되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의 남부 뷔르템베르크주의 칼브에서 목사이자 아버지와 신학계 집안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어서부터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한 헤세는, 21세인 1898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들'을 발표했다. 이 시집이 '틸케'의 인정을 받으면서 문단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904년 장편소설 '페터 카메리트'를 발표하여 이름을 떨치면서 문학적 지위가 확고해졌다.

헤세에게 1946년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안겨준 '유리알 유희'는, 1946년 스위스에서 발표하였다. 이 책은 히틀러 시대의 죄악과 아인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대에, 평화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동서양의 음악, 문학, 철학, 신학을 두루

아우르는 지적 유희가 유럽 지식인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그가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제1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극단적인 군국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학계의 비난을 받았고, 아내, 아들의 병과 자신의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헤세는 그가 태어나 자란 독일을 떠나 스위스에 정착하면서, 문학가로서의 많은 업적을 남기고 1962년 8월 9일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사랑했다. 또한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고, 자기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휴머니스트였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지면상 생략하나, 데미안을 읽으며 '인간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 소설은 주인공 심클레어가 나를 찾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지난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간 본질에 대해 회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내면의 나 자신을 찾는 일은, 그 어떤 알맹이를 찾으려고 무수히 양파 껍질을 벗기는 구도자의 수행과 같다. 심클레어는 자기의 고뇌를 데미안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저자인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볼 수 있고,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1인칭 주인공의 진술이나 해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고

상대방인 '데미안, 피스토리우스, 에바부인' 등의 입을 통해 핵심을 전달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사실적 표현보다는, 상징적 묘사가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꿈을 많이 이용한 것이라든지, '알락사스'라는 신을 인용한 것,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적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소설의 골자이자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알락사스'라는 글귀이다. 저자는 신성과 악마, 남성성과 여성, 인성과 수(獸)성, 선과 악을 다 갖추고 있는 신비로운 '알락사스'라는 신을 인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데미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를 예외적이고 있는 기존 규범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나 자신을 극복해서라도, 설명 밖의 세계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극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헤세다운 휴머니즘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세가 이름 있는 문학가였지만, 8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간을 이

토록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인간에게 내재된 양면성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외친 헤세의 저력이 놀랍기만 하다. 헤세가 60대나 70대쯤 될 때에는, 인간을 관조하는 지혜가 너무나 완숙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전쟁의 아만성과 참극을 목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데미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인간의 목숨이 총알 하나로 모두 사라지는 전쟁의 비극을 고발하고 싶었을 것이다.

심클레어에 있어 구원(久遠)의 여인상이자 불꽃처럼 사랑하고 싶은 연인이 '에바부인'이다. 데미안의 어머니인 그녀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바라지만 그녀는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뜻 깊은 말을 남겨줄 뿐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애정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나 인간의 행복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나 자신과 인간을 되돌아보면서 내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꿈과 이상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설

사이버 인성교육의 기초 선플운동

경찰청은 날로 지능화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할 경찰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은 정보와 공감의 바다를 이루면서 장점이 많은 반면 사이버 범죄와 악플 등의 단점을 낳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치명적인데다가 확산 속도가 빨라 모방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악플 또한 당사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방송된 SBS '질척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서 홍진영은 "대장염을 발견, 밥 아니라 아몬드"는 악플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홍진영은 한 건강프로그램에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작은 흑이었는데 불규칙한 식생활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가 있으면 젊은 나이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부분 긍정적인 댓글이었지만 아주 소수인 하지만 "밥 아니라 아몬드"는 악플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젠 사이버상에서의 인성교육도 절실하다. 사이버상의 인성교육은 먼저 선플(선한댓글)로 시작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플이다. 물론 사이버 인성교육과 함께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죄도 함께 따라야 한다.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수사팀은 지난해 경찰관 1명이 265건을 처리해 평균 80~150건을 처리하는 타 부서보다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매년 30%이상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해킹이라는 범죄를 통해 심리적으로 대담해지게 하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세계적으로 해커 기술 등 사이버범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그 대응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과 단체 심지어 정부까지 경제적·정치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악플에 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 대상자를 대면한 적이 없어 그 분노는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회에 대한 분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방치되면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분노장애자로 넘쳐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증오와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와 악플은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사이버상의 심각한 악플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사이버상에서도 다를 수 없다. 어린 시절 무심코 했던 악플이 몇 차례있어 통과되던 그 다음에는 악플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범죄를 부추기는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플운동은 사이버 인성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선플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 사이버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사이버범죄를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성교육 본질부터 알아야

인성교육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나서면서 그 불통은 인성관련 사교육 학원과 인성 관련 자격증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교육과 세미네에 '인성' 글자가 단골로 들어가고 전혀 인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사에도 '인성' 글자가 들어가면 '인성'이란 글자가 저런 식으로 남발 되어도 될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성 교육 지도서' 같은 인성 관련 자격증도 우후죽순 생겨 2008년 2개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민간 자격증은 2014년 151개로 늘더니 2015년엔 1년 만에 253개로 늘어났다. 더 기막힌 것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 실력 내용을 급수로 매겨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수치를 계량의 현대식 대라고 해도 인성을 급수로 매겨 수치화 한다는 것은 '인성'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등급 한우'처럼 쇠고기 등급제로 되고 수능도 1등급 2등급 등 등급이 나뉘면서 인성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립도 1등급 사립, 2등급 사립, 3등급 사립 하면서 도장까지 찍어 만든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학원들이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나선 까닭은 올 초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데다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가 큰 논란이 되면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자 국회는 지난 1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인성 교육을 위한 단독 법이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인성적이길래 법을 만들어 가면서 인성을 내세워야 할까 하는 측은함까지 느껴진다.

입학사정관제로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좋은 취지도 결국 입학사정관을 위한 사교육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성' 관련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성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정신 뿌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대학 입시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 고대·사대와 유아교육학과 입시에서 인성 요소를 확대하고 대입에서 인성 평가를 잘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성적인 사람들이 대학을 잘들어 가고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인성 평가 강화 방안을 접한 많은 지식인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인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성 평가 문항을 예상해서 뽑아 외우면 그만인 것이다. 객관화 되지 않는 평가를 했을 때 부작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교육의 기본인데 인성교육이 특별한 것이 되었을 때 결국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기본이 인성이고 인성은 결핍함을 알아야 한다. 그 기본교육은 학원에서 돈주고 똑딱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스킴십을 하면서 스승이나 부모와 함께 대화와 격려, 배려와 솔선수범을 통해서 따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칼럼 | 정문호 /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대AMP로타리클럽

삼복을 전던 열정의 여름나기 마무리는 독서



두 더위가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장마가 지난 다음 다가온 햇살과 높은 습도에 잠을 설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폭침을 쏟아오는 매미소리도 스트레스를 더하여 준다. '열소의 불도 녹인다'는 데서도 지나가고 일년 중 가장 날씨가 덥다는 삼복도 초복, 중복이 지나고 말복도 지났다. '복' 지는 사람이 개처럼 열드려 있는 현상으로 가을철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 여름철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지 못하고 열드려 복중한다는 의미이다. 여름에는 가뭄, 장마, 폭염, 태풍, 홍수, 천둥번개, 먹구름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어우러져 여름이 된다. 이러한 여름의 특징을 통해 만들은 격동하고 뿌리내리고 곡식과 과일인 성숙되어간다. 여름에 이런 시련과 고통, 열정이 없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여름에 시원함이 주는 쾌감은 더위의 열도와 비례한다. 더위가 더하면 더할수록 피하려는 욕망이 강렬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위를 벗어날 수만 있게되면 그때 맛보는 피서의 맛이란 봄이나 가을철에 느끼는 시원한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삼복더위를 지나면서 우리의 심신도 지치고 기력도 쇠약해진다. 이러한 때 우리조상들의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날씨가 더우면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몸 안이 차가워진다. 이 차가워진 몸을 더운 때 덥다고 찬 음식을 먹으면 몸안이 점점 차가워져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해 병에 걸리기 쉽다고 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으로 차가워진 속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에 적합한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다. 삼계탕의 주재료가 되는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인삼 역시 열이 많은 재료이다. 참깨와 대추를 넣고 끓이면 여름철에 몸을 보충해주는 고단백 음식이 된다. 그 외 우유탕 장어구이 민어탕 보신탕을 찾는 사람도 많다.

여름 생선의 대표선수는 역시 '민어'를 첫손으로 꼽는다. 복달임 음식으로 민어탕이 일품, 도미탕이 이품, 보신탕이 삼품이라는 말이 전해져 올 정도다. 민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살은 겉질과 함께 회로 먹어도 좋고 찜으로도 제격이다. 민어는 백성의 물고기라는 이름처럼 흔한 생선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의 또 하나는 제철과일이 보약만큼이나 몸에 이롭다. 갈증 해소에는 수박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 땀을 많이 흘리고 햇볕을 많이 쬐어 속이 메스꺼울 때는 냉수보다 낫다. 수박의 당질은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으로 쉽게 체내에 흡수되고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칼륨이 다량 함유돼 식사 후에 먹으면 소금기의 체내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수박씨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해바라기 씨나 땅콩 잣보다 훨씬 많아 씨를 씹어 먹으라고 권하는 전문가도 있다. 뛰어난 성분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다.

수박과 궁합이 잘맞는 과일로는 토마토가 제격이다. 토마토에는 루틴이란 성분이 있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고혈압 예방이 좋다.

또한 여름철 피부미용을 위한 복숭아가 있다. 식물성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당과 유기산, 무기물 식이 섬유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수박, 토마토, 복숭아는 여름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여름의 피서방법 중 독서를 빼놓을 수 없다. 요즘은 휴가철 가방에 책을 꾸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제 전통적인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 아닌 여름으로 자리를 굳혔다고 한다. 여름철 책 판매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30%가량 더 많다는 통계에서 드러난다. 책을 읽지 않으려는 핑계는 많지만 책을 읽어야 할 이유 또한 많다.

미래에 다가올 시대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것도 책을 통해서이고 바쁜 일상에서 지나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책만큼의 게 없다.

혹시 여행 가방에 책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며칠이나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이다.

칼럼 | 주철민 /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가르쳐주는 리더십



요즘을 우리나라 정치권에 새롭고, 기이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 버티기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자기의 뜻이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한다. 스페인 카스티야 왕국의 이자벨라 여왕과 콜럼버스가 유럽인의 아메리카 개척 5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1492: 나원(원)의 정복>>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는 장면과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 외면적으로 대통령의 대외에 공감하는 듯하다. 그 대외는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의 절대적 통치권과 그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대국화, 그리고 국민의 복지 증진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꿈꾸는 대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다. 위대한 정치가나 사상가의 의지가 하나의 이상이나 이념을 사회에 구현시킬 수 없다. 한 국가 내에는 수많은 사회 집단 간의 권력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이래 서양에서 자유주의의 원리는 영웅이나 일부 위인들의 통치를 부정한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그 권리 행사를 위한 의회정치가 자유주의 정부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자벨라 여왕과 그 주변 귀족들에게 충고하는 영화 <<1492: 나원(원)의 정복>>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주장은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콜럼버스는 왕이나 귀족의 이익을 보장하는 세계가 낙원이 아니라고 외친다. 그는 평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분 평등의 신세계를 만들고자 했다. 귀족 목사가 계속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자 콜럼버스는 결국 그를 처형하고자 한

다. 마치 국민을 위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사회의 건설을 주장하는 대통령과 그 사회 건설에 동조했던 정치인이 대통령을 비롯한 옛 동료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행태와 유사하다.

여왕은 마침내 콜럼버스를 본국으로 소환한다. 콜럼버스의 기존 신분질서, 즉 사회체제 부정 때문이다. 영화는 실제와 다르게 소환의 이유를 콜럼버스의 시리사목으로 돌리고 있다. 여왕은 콜럼버스에게 다시는 친척들을 데리고 신대륙을 개척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콜럼버스가 그 말에 발끈해서 대든 이유이다. 그는 여왕에게 개인의 욕심이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개인적 야망을 포기하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대통령에게 대항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영화 속 콜럼버스의 주장처럼 개인적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청렴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현대의 민주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명예의 최대한 보장이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주장하는 콜럼부

스의 영화 속 담화는 그 원리의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대통령이 수감하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회 건설은 정치가들의 반론을 낳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해 가깝다.

우리의 대통령은 콜럼버스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영화 속 콜럼버스가 역사적으로 중대한 과오를 남겼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 종이던 이자벨라 신도시가 태풍에 무참하게 파괴되는 순간, 원주민 통역은 콜럼버스에게 "이제 당신도 우리들의 말을 배우세요!"라고 외치면서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 외침에서 우리는 콜럼버스가 진정으로 원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세계를 건설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도 정책의 구상, 실천 그리고 대외의 회생을 강요하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정한 대한민국 사회의 주변인을 우선시해야 한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민병철	편집인·여영미	인쇄·이철구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06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유희빌딩 15층			
대표 전화 02)535-3449	팩스 02)6008-3377		
편 집 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